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농민이 계속된 가을장마와 태풍에 의해 침수피해를 입은 밭에 양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 강희만기자

■ 르포 / 제주 서부지역 밭을 가보니...

“8~9월 이렇게 많은 비 처음” 한탄

가을장마에 태풍 내습... 밭작물 피해 심각
한림읍 양배추밭 새롭게 모종 심느라 분주
도 전체 농작물 피해 면적 8일 현재 5494ha

9월 들어 모처럼 맑은 날씨가 보인
10일, 제주도 서부지역의 밭작물은
폐허 수준에 가까웠다. 8-9월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한 비날씨가 지난 7일
제주 등 전국을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까지 겹치면서 그 피해는 예
상보다 컸다.
이날 서부지역인 한림읍 수원리의
양배추밭에는 새롭게 모종을 심는
농부들의 일손이 분주했다. 지난 8월
부터 이어진 비날씨와 강풍을 동반
한 태풍으로 심어진 모종은 줄기가
썩고, 뿌리 노출에, 침수 피해까지
입어 처참했다.
김복자(61·한림)씨는 "비와 강풍
피해로 같은 밭에 벌써 양배추 모종
을 3~4회 심고 있는데 올해 농사는
는 인건비는 고사하고 농약값 증당
도 어려울 것 같다"며 "추석이 코앞
이지만 추석날도 차를 지내고 곧
장 밭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 할 판"
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8월 말에
심은 양배추 모종은 비 피해로 썩고,
태풍 피해로 줄기가 썩고, 뿌리가
노출되면서 햇빛을 받아 말라 죽고

있다"며 "밭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봤고, 더 문제는 다른 작물을 심을
시기도 모두 놓쳤다"고 하소연했다.
김재창(75·한림)씨도 "농사를 지
으면서 이처럼 8-9월에 비가 많이
내려 밭이 침수된 적은 없는 것 같
다"며 "양배추 모종에 농약을 뿌려
야 하는데 밭에 밭이 빠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현근(74·한림)씨도 "우리 밭에
가장 먼저 양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피해가 커 새벽부터 나와 새로 모종
을 심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입었
는데도 행정에서는 농약값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애월읍과 한경면 일대 대부
분의 밭은 연이은 굶은 날씨로 농작
물이 없는 빈 밭이었다. 파종시기를
놓치면서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
리는 모습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서부지
역도 큰 피해를 봤지만 동부지역의
피해는 상당하다"며 현장에서는 당
근, 감자, 콩, 더덕은 말할 것 없고
복구도 막막하다는 피해 농가의 말

을 대신 전했다.
이날 제주도가 집계한 피해 규모
는 지난 8일 기준 농작물 피해면적
5494ha(제주시 3645, 서귀포시
1848)이며 태풍 전 2013ha, 태풍피
해 3481ha이다. 하우스 시설물 피해
는 7농가에 1만6099㎡와 양돈장 3개
소 지붕파손 667㎡ 등이며, 축산 1농
가에서도 자돈 450마리가 질식사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개소
(제주시 18, 서귀포시 2)에서 2ha가
량의 농경지가 유실됐다.
작물별 피해 규모는 콩 1361ha, 당
근 1100ha, 감자 991ha, 양배추 560
ha, 월동무 480ha, 기타 1002ha 등이
다. 특히 태풍 피해로 당근, 감자, 월
동무는 80% 가량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종자 유실과 뿌리 손상 및
고사 등으로 대파가 불가피하다. 또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40%, 더덕은 30
%, 콩과 메밀 등은 20%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 일조량 부족과 침수에 따른
썩음이나 병해충에 의한 고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파종이 이뤄
진 당근, 월동무, 마늘, 감자,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포장에서는 침수에
따른 배수 정비와 함께 태풍이 지난
후 역병, 무름병 등의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제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귀탁기자

서귀포 감자밭 썩음병에 폐작 위기

파종 적기 지나고 종자 없어 재파종도 어려워
감갈도 잦은비에 작년보다 당도 0.9브릭스 하락

가을장마에 이은 태풍 '링링'까지
비날씨가 지속되며 감자 등 밭작물
재배농가들이 침수피해를 보거나 파
종 적기를 놓치면서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8월 26일부터 시작된
비는 일주일 이상 이어지다 지난 주
말 태풍의 직접영향까지 제주 곳곳
에 열흘 넘게 비를 뿌렸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감자 441ha, 마늘 337ha, 월동무 160
ha 등 9종의 밭작물 2388ha에서 파
종이 이뤄졌다. 이 중 피해율은 90%
로 피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대부
분의 농작물에서 침수와 유실 피해
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파종후 막 썩을 틈을 틔운 어린씨
나 장기간 물에 잠겨 썩음병 등이

발생한 감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서귀포지
역 감자 파종률은 약 60%, 마늘과
월동무 15%, 양배추는 15%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감자는 파종 적기가 8월 하순으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파종이 이
뤄져야 해 농가들의 마음이 급한 상
태고, 썩음병 피해를 본 농가에선 재
파종을 하고 싶어도 종자가 없어 월
동무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 월동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과잉생산이 반복되는 월
동채소 대신 타작목으로 전환을 유
도하기 위해 월동채소류를 재배했던
농지에 보리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
나 휴경할 경우 도비로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생산조정직접지불제
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가 기대에 못
미치며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눈에 버 대신 콩이
나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
균 340만원을 국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때 지원금 규모가 훨씬
적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산조정직접지
불금에 대해 농가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부터는
상황 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밭작물뿐만 아니라 감갈도 잦은
비로 당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서
귀포농업기술센터가 이달 2일 측정
한 감갈 당도는 7.1브릭스로 작년 같
은기간(8.0)보다 0.9브릭스 낮게 나
타났다. 그 후 계속된 비날씨로 지금
은 당도가 더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
되는 상황이다. 문이숙기자

도두항 유람선 선석 갈등 심화

사업자 점사용 추가 요청
지역 선주들 강력 반발

제주시 도두항 내 선석사용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지역 어민들 사이에
갈등(본보 7월 31일자 4면 보도)의
끝이 길어지고 있어 행정당국의 중
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시는 지난 5일 유람선 사업자
측에서 기존 점사용 허가 지역 일부
변경 건과 점사용 지역 추가 요청 건
을 민원으로 접수했다고 10일 밝혔
다. 사업자 측은 민원을 통해 현재
제주시가 허가해준 점사용지역의 경
우 요트 계류시설 등으로 인해 유람

선 정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사
용지역을 현재 낚시어선들이 정박하
고 있는 선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
청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이와 관련 "예전 도두
항이 포화상태가 아닐 때에는 해당
지역에 별다른 문제 없이 유람선을
정박하곤 했었다"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유람선 정박을 위
한 장소를 추가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람선 사업 정제로 직원 30
여명이 일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
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하
루빨리 유람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두항을 이용하는 지역
어민들은 유람선 점사용지역이 변경
되거나 추가될 경우 낚시어선 댁 곳
이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낚시어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도두항 문제해결을 위해 마을회, 유
람선 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서로
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이
런 상황에서 유람선 사업자가 추
가로 점사용 구역 허가를 신청한 것
은 포화상태인 도두항 상황과 지역
어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
고 성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현
재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도두항 상황과 지역 어민
들의 입장 등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상승 음란행위 60대 실행

공공장소에서 상승적으로 음란행위
를 한 60대가 실행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9)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
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9시
15분쯤 제주 시내 한 호텔 1층 로비

에서 30대 여성 직원을 바라보며 음
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씨는 2017년 11월 10일에
도 같은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
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
취심, 배양실, 연구실, 냉동배아보관
실, 정자 채취실 등 총 42평 규모의
충분한 공간과 최신 배양시설을 갖
췄다. 특히 난임 치료 중심 거점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독자제보 750-2232
표성준기자

제주대병원 난임센터 개소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달 30일 제주
도 유일의 대학병원급 난임/가임력
보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난임센터는 2018년 11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6억5000만원을
들어 완공됐으며 회복실과 난자 채
취실, 배양실, 연구실, 냉동배아보관
실, 정자 채취실 등 총 42평 규모의
충분한 공간과 최신 배양시설을 갖
췄다. 특히 난임 치료 중심 거점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성준기자

제9회 제주4·3유족 한마음대회 개최 안내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9회 제주4·3유족한마음대회를 개최합니다.
화해와 상생의 장에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4·3유족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오전11시-개회식
(9시 30분부터 접수, 10시 30분부터 식전공연 예정)
장소 조천체육관(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11-1)
주최/주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4·3특별법 개정 촉구 시가행진
~ 08:00 : 제주시청 앞 광장 집결
~ 09:00 : 문예회관까지 시가행진 (시청 앞→문예회관)
~ 10:30 : 행사장(제주시 조천체육관) 집결 및 접수
한마음 대회
*10:30 ~ 10:50 : 식전행사
*10:50 ~ 11:00 : 내.외빈 소개
*11:00 ~ 11:40 : 개회식
*11:40 ~ 13:00 : 중 식
*13:00 ~ 15:30 : 공연, 노래자랑, 경품추첨
*16:00 ~ : 폐회/해산
문의처: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전화 724-4343~4)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송 승 문

제1회 전국청소년 4·3 영어스피치대회
전국 청소년들에게 4·3역사를 세계로 홍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제1회 전국청소년 4·3 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 9. 6.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주 최: 제주4·3평화재단 ·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주 관: 한국유네스코협회제주위원회
참가자격: 대한민국 청소년(만14세~ 만18세)
- 중·고교(대안학교 포함) 재학생, 다문화 학생 등
대회일시: 2019. 11. 2.(토) 14:00
대회장소: 제주4·3평화공원내 4·3평화교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주 제: 4·3의 진실과 교훈, 인류평화, 인권신장
참가방법
- 접수기간: 2019. 9. 9(월) ~ 10. 9(수) 18:00까지
- 제출내용: 발표원고(한글·영문), 녹음파일(또는 동영상) 각1부
- 분 량: 중학생 3분~4분, 고등학생 4분~5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p43@hanmail.net)
시 상: 20명
대상 교육부장관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수상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회장
장려상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입 선 한국유네스코협회회장
수상자 수 상금(원 상당)
1명 1,000,000
1명 500,000
1명 500,000
2명 300,000
2명 300,000
4명 200,000
4명 200,000
5명 100,000
특 전
- 대상 수상자는 2020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해외행사 초청 참여
*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jeju43peace.or.kr 문의전화 : 064-723-4307
제주4·3평화재단
JEJU 4-3 JEJU 4-3 PEACE FOUNDATION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리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